

추신수, 2024시즌 후 은퇴... 은퇴식 통해 팬들과 작별 인사
은퇴식서 결국 눈물 “가족처럼 반겨준 팬들께 감사”

“울고 싶지 않다”던 ‘추추 트레인’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은 은퇴식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눈물을 쏟았다.

은퇴식을 통해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추신수 보좌역은 “이방인인 나를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SSG가 1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2-4로 패배한 뒤 본격적으로 추신수 보좌역의 은퇴식이 시작됐다.

은퇴식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추신수 보좌역은 “나는 울고 싶지 않다. 웃으면서 내려오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은퇴사를 읽으면서 결국 눈물을 보였다.

추신수 보좌역은 은퇴사를 통해 “좋아하는 야구, 사랑하는 야구를 평생할 줄 알았고, 이런 날이 올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2022시즌을 마친 뒤 친구 (이대호)가 은퇴하는 것을 보며 나에게도 곧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은퇴사를 쓰다가 팬들 앞에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휴지통에 버렸다. 솔직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날 상대 팀은 부산 출신인 추신수 보좌역의 고향팀이었고, 관중석을 지키고 있던 롯데 팬들을 향해서도 인사를 잊지 않았다.

추신수 보좌역은 “어렸을 때 사직구장에서 롯데의 야구를 봤던 아이였다”며 “어떻게 보면 추신수라는 사람, 선수의 시작점이 사직구장이었다. 비록 시작에서 롯데 유니폼을 입고 뛰지 못했지만, 롯데 팬들의 응원은 어느 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인사했다.

이어 “랜더스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한 추신수 보좌역은 “미국에서 21년을 살다 온 이방인이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그럴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가족처럼 반겨주셨다”며 “많은 지지를 받아 감



1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된 은퇴식에서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이 은퇴사를 하고 있다.

사진 = SSG 랜더스 제공

사했다. 야구 선수를 끝내는 순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추신수 보좌역은 “아빠 없이 건강하고 멋지게 커 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고,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며 감정을 추스른 그는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 주고, 같은 자리에 있어준 아내에게 고맙다. 지금의 저를 아내와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야구 선수는 끝났으니 같이 행복해보면 한다”고 말했다.

SSG의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 총괄을 맡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추신수는 “야구 선수로서 열정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또 다른 열정이 피어나고 있다. 우리 랜더스 선수들을 돕는 것”이라며 “우리 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후배들을 향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하지 말고, 그라운드에서 있을 때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 전부터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추신수 보좌역이 시표를 맡아 시구자로 나선 아내 하원미씨의 공을 받았다. 딸 추소희 양이 시타자로 나섰다.

추신수 보좌역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아내의 시구가 은퇴식보다 긴장된다. 22년을 야구 선수 남편으로 살았으면 어느 정도 따라해야 하는데 운동 신경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하원미씨가 던진 공은 비록 원바운드였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추신수 보좌역에게로 향했다.

이날 경기에서 SSG 선수단은 모두 추신수 보좌역의 선수 시절 등번호와 그의 영문 성인 ‘CHOO’를 달고 경기에 임했다.

경기가 끝난 뒤 ‘AND&END CHOO’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은퇴식은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던 선수배,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 영상으로 시작했다.

SSG 좌완 에이스 김광현은 “미국, 한국 최고의 야구 선수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다”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KBO리그 통산 홈런왕인 SSG 간판 타자 최정은 “한국 최고의 야구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어 영광이었다. 옆에서 많이 배웠다”며 “신수 형의 새로운 시작도 축하한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시절 함께 꿈을 키운 ‘죽마고우’ 이대호는 “많은 분께 축하받으며 은퇴하는 모습이 친구로서 가슴 벅차고, 행복하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고생 많았다”며 “이제 다 잊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메이저리그(MLB) 무대를 함께 누볐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한화 이글스)은 “대단한 선배였고, 신수 형과 맞대결하는 날은 뜻깊은 하루였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신수 형과 맞대결을 할 수 있었다”며 “미국, 한국에서의 맞대결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을 만큼 나에게도 최고의 장면이었다”고 추억했다.

/뉴시스



황선우, 광주 수영 전국선수권서 개인혼영 200m 우승

김영범, 계영 400m·자유형 100m 이어 계영 800m서도 우승

황선우(강원도청)가 주종목이 아닌 개인혼영 2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황선우는 14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 제수영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1분59초05의 대회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개인혼영 200m는 한 선수가 점영, 배영, 평영, 자유형 순으로 50m씩 해엄치는 종목이다.

황선우의 주종목은 아니다. 그의 주종목은 자유형 100m, 200m다.

하지만 개인혼영 200m 한국기록은 황선우가 갖고 있다.

황선우는 서울체고 재학 중이던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분58초04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남자 고등부 1위를 차지했다.

당시 황선우는 2014년 MBC배 전국 수영대회 겸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태환이 수립한 2분00초31을 7년3개월 만에 2초27 단축했다.

황선우는 다음달 11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실전 점검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 나섰다.

점점 차원인 만큼 주종목 대신 점영 100m, 개인혼영 200m에만 출전했다.

/뉴시스

황선우는 지난 12일 벌어진 점영 100m에서도 52초34로 우승했고, 개인혼영 200m에서도 정상에 서 2관왕에 올랐다.

4년 전 작성한 한국기록에는 1초 넘게 뒤처졌지만,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경기를 마친 황선우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4년 만에 개인혼영 종목에 출전했다. 개인 최고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나쁘지 않은 기록으로 마무리해 만족스럽다”며 “이번 경기를 계기로 개인혼영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세계선수권은 개인종목으로만 네 번째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며 “4회 연속 메달을 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만, 욕심을 내기보다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진짜 목표”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 수영 기대주 김영범(강원도청)은 단체전인 계영 800m에서 양재훈, 김민준, 윤지환과 호흡을 맞춰 7분23초23으로 우승했다.

앞서 계영 400m, 자유형 100m에서 우승한 김영범은 3관왕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구례군청 씨름단, 괴산유기농배장사씨름대회 무궁화급 우승
최희화 선수 무궁화급 정상 올라... 단체전 준우승 기록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개최된 ‘제2회 괴산유기농배장사씨름대회’에서 무궁화급 우승, 단체전 준우승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전국 최정상급 실력을 입증했다.

무궁화급(80kg 이하) 결승전에 출전한 최희화 선수는 화성시청 김아현 선수를 상대로 첫판에서 시작과 동시에 어깨 걸어치기 기술을 성공시키며 기선을 제압했고, 두 번째 판에서도 뒷무릎 밀어치기로 마무리하며 2대 0 완승으로 무궁화급 정상에 올랐다.

경기 후 최희화 선수는 “무궁화급 우승을 오랜만에 차지해 감회가 새롭다”며 “슬럼프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단체전에서도 구례군청 씨름단은 결승에 올라 값진 준우승을 기록하며 팀 전체의 저력을 입증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의 자랑인 반달곰씨름단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뛰어난 성적을 거두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해 군민들에게 감동을 전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K리그1 광주, 울산 측면 수비수 심상민 임대 영입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울산 HD 출신 측면 수비수 심상민을 임대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경고와 중앙대 출신인 심상민은 지난 2014년 FC서울 입단으로 프로에 데뷔했다.

그는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8강행에 일조하며 주목받았다.

심상민은 2019년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한 뒤 상무 시절(2020~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 시즌 20경기 이상을 뛰며 주축 풀백으로 활약했다.

특히 2023년에는 포항과 FA컵(현 코리아컵)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울산으로 이적했던 심상민은 올여름 임대로 광주에 합류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광주는 “심상민은 빠른 발과 과감한 오버래핑이 장점인 왼쪽 풀백”이라며 “패스 능력은 물론 통스루인 능력까지 장착해 다양



한 루트를 제공할 수 있는 수비수”라고 소개했다.

심상민은 “광주라는 좋은 팀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 광주의 축구를 습득하고 따라갈 생각에 설렌다”며 “팬들께서 아시아 무대에 다시 참가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실 것 같다. 광주가 한 번 더 아시아 무대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위한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일월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CG (의한화/건설)

EDC 엔대신알개발

062) 607-8338